

중세 한국의 Sticksports에 대한 새로운 이해 I

- 궁중 Sports로서의 GOLFSPORTS에 대하여 -

배영호¹⁾ · 오만원²⁾ · 정구철³⁾

- 목 차 -

ABSTRACT

I. 시작하는 글

II. 논의를 위한 글

1. GOLFSPORTS에 대한 체육학적인 分析

2. 史料에 기록된 궁중 Sports

III. 마무리하는 글

참고문헌

New Understanding of Korean Sticksports in the Medieval Times (I)

Bae Young-Ho · Oh Man-Won · Chung Ku-Chul

ABSTRACT

To attempt new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al sports played from ancestor, present study was focused on the entity of TAGU sticksports played by korean king's palace in the medieval times.

Sticksports called Kyukgu, Tagu or Bonghee in the korean king's palace, as it's characteristic and traits, were very similar with present golf sports. And these sticksports(golfports) were very prevalanced in the Korean Royal family from the beginning of the medieval times in this investigation results.

Sticksports like Polo, these sports are seem to be introduced into the Korean Royal family from China in 12-13 century.

As a results of investigation on the origin of golfports controversy, the origin place of golfports is not England or European country, but Asian country. The reasons are as follows ;

- 1) The origin times of golfports was known generally from the beginning of the 13 century, but golfports called Chui-Wan or Tagu(Bonghee) were played already in 11 century in East Asian countries.
- 2) In contrast of golfports characteristics to "Soule a la Crosse" of Europe with "Chui-Wan" or "Tagu(Bonghee)" of East Asia, Chui-Wan or Tagu is advanced in 'Spielgedanke' and sports style of present golf than those of Soule a la Crosse of

1)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2)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3)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시간강사

Europe.

- 3) Crosse, Golf, kolf, Golfen and kolben mean only stick, but Chui-Wan, Tagu(Bonghee) mean not only stick but also striking the ball by stick.

I. 시작하는 글

우리의 先祖들은 체육학적인 價値가 優秀한 많은 身體文化(Körperkultur)들을 개발, 발전시켰으며, 그 중 많은 종류들은 민속놀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 體育 史學系에서는 아직도 이것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못하고 있으며, Sports의 한 분야로써 수용하고 있지도 못한 실정이다. 더우기 Sports적인 要素를 충분히 內包하고 있었던 몇개의 전통 Sports -그 중에서도 StickSport로 구분 할 수 있는 擊毬, 打毬, 장치기- 들은 그 성격과 가치에 있어서 잘못 이해되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다.⁴⁾

擊毬라고 불리웠던 Sports가 그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史的 資料들에 나타난 擊毬 또는 打毬라고 기록된 Sports를 동일한 Sports로 인식해 왔으나, 그것들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Sports였다. 이러한 事實을 體育學的인 觀點을 통하여, 그 實體를 규명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本考에서는, 그 첫 번째 시도로서 中世 한국의 왕실에서 행해졌던 打毬 곧, Golfsports에 대하여 논의코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Golfsports가 이미 중세 초기에 한반도에 존재 했음을 밝히고, 나아가 아시아 대륙에서 최초로 Golfsports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세계 체육사학계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Golfsports 발생지 에 대한 새로운 見解"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傳統體育, 즉 한국 體育史에 관한 研究는 羅絢成 教授의 先驅的 業績이 있다. 비록 개괄적인 서술이나, 그는 한국 체육사에 대한 理解를 높이는 데 絶對的인 寄與를 했다. 그 외에도 약간의 體育史學者들의 業績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 體育 史學界는 一般 史學界 -國史, 한국 文學史, 民俗史- 또는 人類學史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선조들의 身體文化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體育 史學的인 입장에서 미흡한 실정이다.

II. 논의를 위한 글

논의의 효율적인 전개를 위하여 (1) Golfsports에 대한 체육학적인 관점에서의 논의와 어원, 발생지에 대한 논쟁, Sports로써의 분류, 운동의 원리와 (2) 史料에 기록되어진 擊毬, 打毬 (棒 戲) 그리고 장치기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 實體를 밝힌다.

1. Golfsports에 대한 체육학적인 分析

1-1) Golfsports發生地 論爭에 대하여

國·內外에서 Golfsports는 生活스포츠 또는 새로운 健康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

4)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발간된 여러종류의 사전류와 관련서적, 심지어는 체육사학적인 논문등에서도 잘못 소개되거나 인용되고있다.

한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 고조되고 있다.

Golfsports의 발생지는 과연 어디일까? 유럽의 體育 史學界에서는, 이와 같은 品位 있고 인기 있는 Sports의 발생지에 대한 논쟁이 매우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지금은 논쟁의 마지막 樣相으로 접어든것 같다.

“Golfsports 발생지 논쟁”은 곧, 스코틀랜드 發生說, 네덜란드 發生說 그리고 근래에 제기된 北部 프랑스 發生說등이 그 것이다.

이러한 論爭은 다시 크게 영국 發生說과 유럽 대륙 發生說로 區分되는데, 1988년에 제기된 北部 프랑스 發生說과 함께 일단은 大陸 發生說이 判定勝으로 최소한 196년 넘게 持續되던 “發生地 論爭”은 中斷된 것 같이 보인다.(Gilmeister, 1988 pp.81-82)

그러면 우선 Dover 海峽(Ämelkanal)을 사이로 하여 대두되었던 “Golfsports 發生地에 대한 論爭”에 대해서 살펴보자.

1792년 當時까지 팽팽하게 맞섰던 Golfsports 발생지에 대한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의 對立은, 스코틀랜드 사람 John MacBirdie -최초의 홀 인원(Hole in one)을 기록했던- 에 의해서 發見된 1457년 스코틀랜드 Jakob II 세에 의해 宣布되었던 “蹴球 및 Golf 禁止令”⁵⁾에 대한 議會 記錄 文書와 함께 스코틀랜드 發生說은 기정 사실화 되었다. 그러나 이 主張은 다시 1982년 네덜란드의 Golf 歷史學者 J.H van Hengel에 의해서 反駁되었다. 當時 네덜란드 地域에서⁶⁾ 행해졌던 Golfsports에 대한 記錄 文書들의 發見과 함께 “네덜란드 發生說”이 다시 강력히 대두되었는데, 그에 따르면 “Bruegge市民”들은, 이미 1360년에 “Golfen”이라는 이름으로 Golfsports를 시행했으며, 특히 “내기 경기”⁷⁾를 했던 흔적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로써 최소한 1457년의 스코틀랜드 보다 97년이나 앞선 1360년에 네덜란드에서 행해졌었다는 주장이 學界에서 公認되기에 이르렀고, 양측에서는 Golfsports와 관련된 보다 앞선 年代의 기록을 찾기에 분분했다.

이 過程에서 그들은 Golfsports가 “Colven”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실도 알게 되었다.

1988년에는 이러한 論爭에 독일의 比較 言語學者 Heiner Gilmeister가 지금껏 알려지지 않고 있던 “Golfsports”의 語源的 根源에 대한 새로운 주장과 함께 Golfsports의 “大陸 發生論”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그는 1261년에 번역된 프랑스 책 “de Merlin의 Maerlant에서 온 Flandern 사람 Jakob” (Der Flame Jakob van Maerlant)에 Stickspots를 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쓰여진 것에 有意하고 있다.

“왕이 쓴 便紙를 孤兒 少年 Merlin⁸⁾ -魔術師 이기도 했던- 에게 전하고자 少年을 찾아 나선 王의 使者는 城門 앞에서 열심히 공놀이하고 있는 少年을 發見한다...”

꼬마 마술사 소년(Merlin)은 자기의 Stick을 이용하여 공을 치고, 또한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Gilmeister, 1988 PP. 81-82)

Gilmeister는 이 少年이 하던 놀이는 “Soule `a la Crosse”라는 古代 프랑스식 놀이로서 끝부분이 휘어진 양치기 들이 使用하는 막대기(Crosse)를 사용하는 놀이이며, 이 고장에서 막대기

5) 원본에는 “...the fut bal ande the golf be vtterly cryt downe and nocht vsyt”(축구와 골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의 古語

6) 당시 네덜란드 지역이었던 지금의 벨기에 소속 “Bruegge” 라는 도시

7) 패자는 승자에게 20실링을 주었다.(“Wie met Coulen tsolt es om twintich scellinc oft op hare ouerste cleet”)

8) 여기에서 소년 Merlin은 Artus왕을 위한 이야기(Artus왕의 전설)에서 잘 알려진 마술사이다.

(Stick)를 “kolb”⁹⁾ 라고 했던것도 밝혀 내었다. 또한 “Soule a la Crosse”는 一般的으로 Crecy-Fenster라는 “Soulegame”¹⁰⁾ 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놀이임을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주장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 Soule a la Crosse” 또는 “Merlingsgame”은 오히려 현재의 Golfsports 보다는 Hockey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內包된 Game原理(Spielgedanke)¹¹⁾, 發展經路 - Flandern地方을 통하여, 당시의 네덜란드 지역인 “Bruegge” 지역으로 전해졌던- 의 共通性, 그리고 프랑스 北西部 地方에서 행해졌던 “Golfen과의 관련성”등 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合理化 하고 있다. 이러한 發展過程을 거치며 15世紀 中盤에 미니 Golf가 Flandern 地方에서 행해졌으며, 비슷한 時期에 네덜란드에서는 亞鉛으로 이루어진 Golf채를 使用하기 시작했고, 더우기 1545년 25개 條項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Golf 競技 規則書가 Amsterdam의 라틴어 學校 校長이었던 Pieter Afferden에 의해 學生들의 라틴어 會話 教育을 위해서 쓰여졌고, 곧이어 1552년에는 公式적으로 印刷되어 최소한 약 200년간 사용되었다.(Quanz,1992)¹²⁾.

이렇게 하여 영국 發生論과 大陸發生論 사이의 Golf發生地에 대한 論爭은 大陸 發生論을 기정 사실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일단락 되어진것 같다.

1-2) 운동 특성에 따른 Golfsports의 분류 및 운동원리(Spielgedanke)

Diegel(1982)의 Sports分類에 따르면, Golfsports는 Polo= 擊毬 와 Hockey= 장치기 등과 함께 Stick을 사용하여 Ball을 치는 類(Schlägerspiele)에 分類된다.

그리고 “Sports Duden”(1987)¹³⁾에 따르면 현재의 Golfsports는 다음과 같은 8가지 運動原理(Spielgedanke)를 內包하고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① “잔디 위에서 하는 운동으로서, ② 각자의 Ball을 ③ 여러가지 용도를 위한 Club 을 사용하여 ④ 가급적 작은 타수로 ⑤ 경기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피하여 ⑥ 지정된 구멍(Hole)에 Ball을 ⑦ 쳐 넣거나 ⑧ 몰아 넣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運動原理와 分類 基準에 따라서 西歐에서는 “Soule a la Crosse”를 현재의 Golfsports의 原形으로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2. 史料에 기록된 궁중 Sports -擊毬와 打毬(棒戲)- 의 實體에 대한 論議

中世 한국의 擊毬(polo)에 대한 일반적인 史的 考察은 羅絢成(1982)과 郭亨基(1978), 이진수(1987)등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나, 그들은 擊毬와 관련된 많은 史的 資料들을 충분한 檢討 없이 引用하여 그것들의 實體를 看過하고 말았다.

이진수(1987)는 중국측 資料들을 提示하며 비교적 자세하게 擊毬와 打毬의 차이점을 糾明했

9) 1350년 경에 북부 프랑스에 존재했던 놀이로서 “리겔라” 나무가지로 된 棒을 사용했다.

10) Soule-Game 은 종종 가장 오래된 Golfsports의 원형으로서 주장되어지기도 하나 사실은 greycy Crecy의 전투에서 승전 병사를 추모하던 북부 프랑스 지방의 행사

11) 이 규칙은 1754년 “왕실골프 클럽 (Royal and Ancient Club)의 클럽경기 < Club turnier > 를 위해서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기전 까지 사용 되었고, 현재의 규칙에도 여러가지 형태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12) 이규칙은 그후 인문주의 교육사상의 발전과 함께 유럽전역으로 전해진다. 독일에서는 1575년 Köln의 인쇄업자 Johannes Gymnich 에 의해 라틴어-독일어 Golf 규칙서가 제작된다.(Quanz, 1992, 18)

13) Duden 출판사는 독일의 가장 권위 있는 출판사이며, Sport-Duden 은 체육에 관련된 용치어를 수록하고 있다.

으나, 그 역시 史料에서 보이는 擊毬 또는 打毬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궁중 Sports의 實體를 看過했다.

擊毬 즉, Polosport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導入 經緯, 時期, 發展과 衰退, 이웃 나라 -중국과 일본- 들과의 關係)는 後續될 “Sticksports에 대한 새로운 이해 II” 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擊毬 또는 打毬라는 이름으로 쓰여진 궁중 Sports의 實體를 把握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擊毬는 곧, 오늘날의 Polo경기로서 한반도에는 新羅 末期(9世紀 경) 중국 唐나라를 통하여 導入되어 高麗王朝 全 時期 동안 귀족 Sports로서 王室과 武官들에 의해서 愛好되었다. 龍飛御天歌에는 당시의 擊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高麗 때 每 端午節에 武官의 年少者 및 衣冠의 子弟를 가려서 擊毬의 戲를 가르친다. 그날에 이르러서는 九達의 傍에 龍鳳의 張殿을 베푸는데, 野次連幃으로서 殿을 만든다. 刻하여 龍鳳의 形을 만들어서 이를 꾸민다. 殿 앞 左右에서 각 200步쯤 길 가운데 붙여서 毬門을 세운다. 길 양편을 오색의 錦緞으로서 婦女의 幕을 맺는다. 이에다가 名畫彩談으로서 베푼다. 이때 卿大夫로 다 이에 따른다. 擊毬하는 사람은 盛服盡飾 後靡를 極한다. 만일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입었음을 보면 꼭 이와 같이하고자 하니 一鞍의 값은 中人 十家의 財産에 해당한다. 二隊로 하여 左 右에 갈라선다. 妓 一人이 毬를 들고 들어오는데, 步行이 奏樂의 節에 맞도록 한다. 殿 앞에 당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에 이르기를 “滿庭簫鼓飛毬簇, 綠竿紅網惚擡頭” 라는 노래가 끝나면 물러나간다. 또 奏樂의 節에 맞추어서 毬를 道中에 던진다. 左右隊는 모두 말을 달려서 毬를 다룬다. 맨 먼저 쳐서 맞춘 자를 首擊이라 한다. 나머지는 모두 물러선다. 이때 都人士女의 구경꾼이 山積한다.

擊毬의 法은 먼저 말을 달려서 나아간다. 排至로서 毬를 움직이고 持皮로써 이를 굴린다. 毬가 만일 凹 속에 들어가면 또한 排至를 쓴다. 杖 안쪽 면으로써 毬를 推去해서 이를 친다. 이를 持皮라 부른다. 세번해서 杖을 잡아 橫直하기 말귀와 가지런히 한다. 이를 귀견증(比耳)이라 한다. 이 귀의 後手를 들어 마음대로 친다. 손이 高抗해서 杖이 下垂하니 垂楊이라 한다. 이때 毬가 돌에 부딪쳐 되 돌아와서 말 앞 두 발 사이에 들어가 뒤의 두 발 사이로 나왔다. 太祖(李成桂)는 곧 仰臥해서 몸을 기울여 馬尾로 받아쳤다. 毬가 또 앞의 두 발 사이로 나왔다. 따라 쳐서 門을 나왔다. 그때 사람들이 이를 防尾(치니막이)라 하였다. 또, 行擊때 垂楊하여 毬의 橋柱에 부딪혀 말 왼편으로 나왔다. 太祖는 바른 便 鎧를 받아 몸을 낮추어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이를 쳐서 맞혔다. 이어 달려 내리치며 門을 나갔다. 그때 사람들이 이를 橫防(엇막이)라 하였다. 이통에 온 나라가 들썩 하였고 전고에 일찌기 듣지 못한 바다” (龍飛御天歌(下) 卷 6 第 43章 高麗時代의 擊毬條)

위의 기록을 통하여 당시 擊毬 즉, Polo競技의 規模와 사회의 關心 정도를 미루어 알 수 있다. 이렇게 華麗하고 거창하게 행해지던 高麗 시대의 擊毬가 朝鮮祖 世祖 때에 와서는 이상한 形態로 變化된 것을 볼 수 있는데 關聯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世祖 元年(1456) 9月 8日, 王이 경희루에 나아가서 활쏘는 것을 보고, 드디어 思政殿에 入御하여, 宗親들의 棒戲를 관람하였다. 棒戲를 혹은 擊毬라고도 한다.

擊毬 하는 法은 혹은 數人, 혹은 十餘人 혹은 數十人 이 左右로 나누어서 勝負를 겨루는데, 棒의 모양은 匙(匙) 과 같고, 크기는 手바닥과 같은데, 水牛의 가죽으로 만든다. 두터운 대나무를 합하여 棒의 자루를 만드는데, 棒皮가 얇으면 毬가 높이 솟고, 棒皮가 두터우면 毬가 높이 솟지 않는다. 衰棒이란 것이 있는데 槌 毬 가 구르고 위로 뜨지않는다. 그 厚薄大小에 따라 그 명칭이 각기 다르다. 毬는 나무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혹은 礪怒濤 쓰며, 크기는 鷄卵만하다. 땅을 파서 主발 모양같이 하고 이를 이름하여 窩兒라 부르며, 혹은 殿閣 을 사이에 두고 窩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혹은 階上(階上) 위에 窩를 만들어 놓기도 하며, 혹은 平地에 만들기도 한다. 毬가 굴러갈 때 혹은 뛰어 넘기도 하고(騰越), 혹은 비켜 가기도 하며(斜起), 혹은 굴러가기도 하여(輪轉), 각기 그 窩의 所在에 따라 다르게 된다. 한번 쳐서 窩 속에 들어가면, 算가지 2개(2 點)를 얻고, 한번 쳐서 들어가지 못하면, 毬가 그쳐 있는 곳에서 두번 세번쳐서 들어가면, 算가지 1개를 얻는다. 한번 쳐서 들어가면 다른 毬는 두번 치지 못하고 죽으며, 두번 쳐서 들어가면 다른 毬는 세번치지 못하고 죽는다. 이 뒤에도 이와 같다.

한번 槌 毬는 비록 다른 毬와 부딪쳐도 죽지 않지만, 두번 槌 毬가 다른 毬와 부딪치게 되면 죽는다. 혹은 서서 치기도 하고(Standing Position), 혹은 무릎꿇고 치기(Squating Position)등 여러 가지 방법이 (節目甚多)이 있다.

「擊毬之法 惑數人 惑十餘人 惑數十人 分左右以較勝負 棒形如匙大如掌用火牛皮爲之 以厚竹合而爲柄 棒皮薄則毬高起厚則 毬不高起 又有衰棒所擊之 毬輪而不起 隨其厚薄大小厥各各異 毬用木爲之 惑用馬腦大如鷄卵 掘地如碗 名窩兒 惑隔殿閣而作窩 惑於階上作窩 惑於平地作窩 毬行惑騰越 惑斜起 惑輪轉 各隨窩所在之 宜一擊入窩則得算二 一擊不入隨毬所止 再三擊之而入則得算一 一擊而入則他毬不得 再擊而死 再擊而入則他毬不得 三擊而死此後同 一擊之毬雖與他毬相觸而不死 再擊之毬與他毬相觸而死 此後亦同 惑立而擊 惑軌而擊 節目甚多」

이진수(1987, 10)는 여기서 節目甚多의 意味를 丸經¹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抽出하여 소개하고 있다.

[卷上 : 承式章第一, 崇高章第二, 審時章第三, 因地章第四, 擇利章第五, 定基章第六, 取友章第七,

正定儀章第八, 置序章第九, 試藝章第十, 記止章第十一, 制財章第十二, 衍數章第十三, 運輸章第十四, 決勝章第十五, 出奇章第十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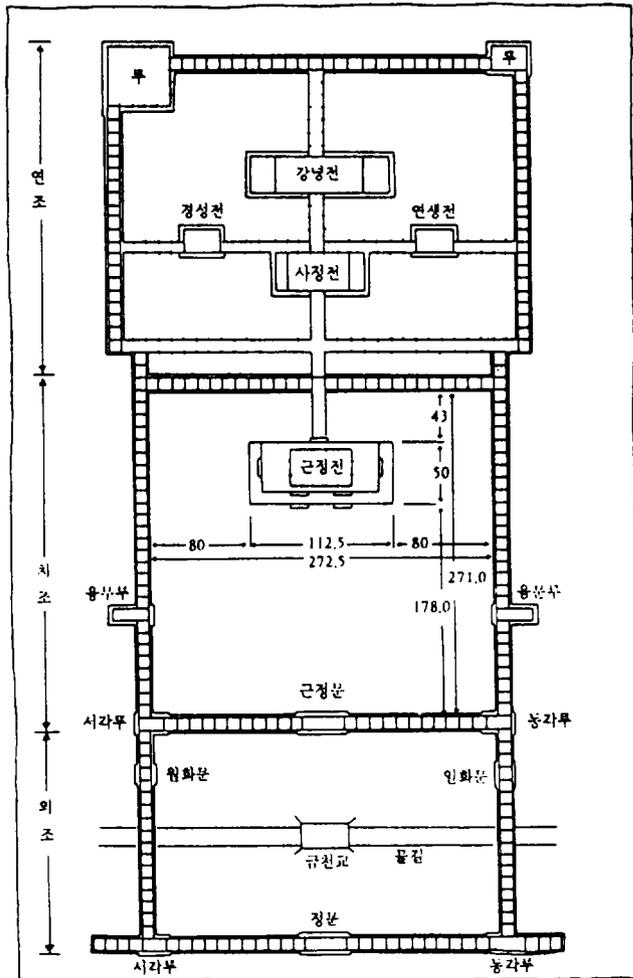
卷下 : 權輿章第十七, 製器章第十八, 取材章第十九, 適宜章第二十, 處用章第二十一, 觀形章第二十二, 善行章第二十三, 寧地章第二十四, 集智章第二十五, 學要章第二十六, 知幾章第二十七, 守中章

第二十八, 翫心章第二十九, 貴和章第三十, 待傲章第三十一, 知人章第三十二.] ·

위에서 인용한 2개의 기록을 자세히 分析해 보면, 그것은 다같이 擊毬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졌으나, 그 성격들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前者는 확실한 Polo경기에 대한 說明이며, 後者는 오늘날의 Minitur 즉, 간이 Golf와 매우 類似한 形態의 golfsports이다. 그리고 특별히 後者는 王宮내 내전(內殿)¹⁵⁾에서 행해졌음에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14) 丸經은 元代에 쓰여진것으로 알려져 있고, 宋代에 유행했던 추丸 에관한 指針書이다(이진수, 1987, 10).

疑問을 提起한다. 왜냐하면, 과연 王宮 안에서 Polo에서 絶對 條件인 말(馬)을 달리면서, 그 격렬한 競技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競技를 치를만한 충분한 場所가 宮內에 그것도 內殿에 設置되었을까? 하는 강한 疑問이 提起된다. 이와 같은 의문을 解消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宮闕의 構造와 크기에 대해서 살펴보자. 당시의 王宮은 주로 3개의 地域으로 區分되었다. 이조 初期의 王宮이었던 景福宮의 예를 들면 다음 그림(1)과 같이 중국의 영향을받아 “三門三朝” 原則을 적용하여 配置되었다. 여기서, 三朝는 燕朝, 雉朝(또는 內朝) 그리고 外朝를 말한다. 燕朝는 왕과 왕비 및 王室 一族이 생활하는 私私로운 區域으로 內庭이라고도 한다. 雉朝는 임금이 신하들과 더불어 政治를 행하는 公的인 區域으로서 正殿(朝禮를 舉行하고 法令을 頒布하며, 조회를 받는



<그림 - 1> 이조 초기의 왕궁인 경복궁 배치도

15) 태종 5년(1405)에 이궁으로 세워진 창덕궁 처음에 외전 74칸, 내전 118칸 규모로 지어졌으나 이후에 광연루, 진선문, 금천교, 돈화문 (정문) 집현전, 장서각 등이 증설되어 때로는 왕이 경복궁 대신 창덕궁으로 옮겨 거처 하면서 政治를 행하기도 하였다. (한국의 궁궐 p 104)

중세 한국의 Sticksports에 대한 새로운 이해 I (배영호 · 오만원 · 정구철)

곳)과 便殿(重臣들과 國政을 의논하는 곳)이라고 한다. 外朝에는 조정의 官僚들이 執務하는 官廳이 配置되는 區域이다. 三門은 庫門(外朝의 정문), 雉門(雉朝의 정문) 그리고 路門(燕朝의 정문)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構造는 儒敎的 君主觀의 影響인데 “궁실제도”라는 이름으로 周禮와 같은 禮書에 잘 정리해 놓았다. 이밖에 “周禮考工記”에 明示되어 있는 國都의 構成 原理에 의하면, 前朝後市(궁궐을 중심으로 앞쪽에는 政治를 행하는 官廳을 놓고, 뒤쪽에는 시가지를 形成한다는 의미임), 左廟右社(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조상의 祠堂인 宗廟를 놓고, 오른쪽에는 社稷壇을 配置한다는 意味). 또 궁궐의 構成 原理로는 前朝後寢(궁궐은 앞쪽에 政治를 행하는 場所인 朝廷을 두고, 뒤쪽으로는 임금을 비롯한 왕실의 居處인 寢殿을 配置하는것)의 原則을 따랐으며, 주로 궁중Sports였던 打毬 즉, Golf는 이 區域에서 행해졌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 왕궁내 그 어떤 구역에서도 말을 달리며 擊毬를 하기에는 장소가 절대적으로 비좁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擊毬 또는 打毬를 하거나 관람했다는 기록이 아주 빈번하다. 우선 관련 기록들을 먼저 살펴보고 논의를 계속하자. 우리는 高麗史와 朝鮮實錄에는 擊毬에 관한 많은 기록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기록들 중에서 단순히 擊毬(Polo)로 이해 하기엔 주저되는 기록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150年(毅宗 4年) 11월 丙申에 康安殿에 幸御하여 內侍, 祇候 이하에 擊毬를 命하였다; 御康安殿, 命內侍祇候以下擊毬. (高麗史 世家 17卷 毅宗 4年 11月 丙申條)

1282年(忠烈王 8年) 5월 辛酉에 왕이 공주와 涼樓에 幸御하여 忽赤 鷹坊으로하여금 나누어 擊毬하게하고 勝者에게 銀瓶을 施賞 하였다; 王與公主, 御涼樓, 使忽赤, 鷹坊分朋擊毬, 勝者, 賞以銀瓶.(상게서 世家 29 卷 忠烈王 8年 5月 申酉條)

1320년(忠肅王 7 年) 5월 己卯에 왕이 몰래 左右와 더불어 禪興寺 앞에서 打毬함, 癸未에 旻天寺에 行御하여 密直寺 天忠에 打毬를 命하여 이를 보았다; 王, 潛與左右, 打毬於禪興寺前, 癸未 幸旻天寺, 命密直使 元忠 打毬觀之. (상게서 世家 35 卷, 7年 5月 己卯條)

1392年 9月 26日, 임금이 內庭에서 擊毬 하였다; 上擊毬于內庭.(太祖實錄 2 卷 甲申條)

1392年 11月 9日, 임금이 內庭에서 擊毬 하였다; 上擊毬于內庭.(상게서, P. 148)

1393年 2月 9日, 왕이 內庭에서 擊毬 하였다. 前 參知門下府師 都興, 前 中樞院 副師 柳雲과 宗親이 모시었다; 與都興 柳雲等擊毬于內庭.(定宗實錄 1卷, P. 14)

1393年 1月 19日, 왕이 經筵에 나아갔다가 여러 公候가 宦侍와 더불어 內庭에서 擊毬 하느라고 떠드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임금이 史官 李敬生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擊毬 하는 일 같은 것도 또한 史冊에 쓰는가?” 하니, 敬生이 對答하기를 “일군의 거동을 반드시 쓰는데 하물며 擊毬하는것이겠습니까?”... 經筵에 나아가 講을 끝내고, 內庭에서 擊毬 하였다. 대사헌 趙瑛이 진언하기를 “擊毬 하는 놀이는 다만 기운을 통하자는 것이니, 과로하게 하지는 마소서...; 御經筵諸公 與宦寺擊毬於內庭 喧 不已 上顧謂史官李敬生曰如擊毬事亦書諸史乎敬生對曰君

舉必書況擊毬乎... 經筵 已擊毬于內庭.(定宗實錄 1卷 元年 二月 庚寅條 P. 17)

1393年 4月 4日(戊寅), 임금이 王瑀와 더불어 擊毬하였다; 上與王瑀擊毬...(太祖實錄 太祖 2年 P. 151)

1393年 8月 29日, 임금이 內庭에서 擊毬 놀이를 하였다. (太祖實錄 1卷, P. 63)

1393年 11月 12日 (甲午), 임금이 擊毬 하였다; 上擊毬.(상계서, P. 221)

1399年 1月 8日, 왕이 經筵에 나갔다. 講官에 이르기를, “寡人이 有疾하여 手足이 酸痛하니 혹시 擊毬로 運身行氣하고자 한다. ...”라 하고, 격구를 내정에서 前參知門下府事 都興, 前中樞院副使 柳雲 宗親等이 모시고 하였다; 御經筵 謂講官曰, 寡人有疾 手足酸痛, 惑時擊毬, 欲以運身行氣也...擊毬於內庭, 前參知門下府事 都興, 前中樞院副使柳雲及 宗親侍焉. (定宗實錄 1卷 元年 1月 庚辰條)

1408년 10월 戊子條, 太上王이 戲弄하며 말하기를 “왕이 일찌기 나와 擊毬를 하여 이기지 못하였으니 이제 罰 하고자 한다” 하고, 이로써 부르니 上이 獻壽하고 이어 告하였다; 太上王戲曰, 王堂與我擊毬而不勝, 今欲罰之, 是以召之, 上仍獻壽, 乃告. (太宗實錄 卷 8 8年 10月 戊子條)

1411年(太宗 11年) 윤 12月 10日(丙寅), 임금이 上王을 받들고 內殿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擊毬하고 극진히 즐기었는데 宗親이 參與하였다; 上奉 上王置酒于內殿 擊毬盡歡宗親與焉(太宗實錄 22卷, P. 113)

1412年(太宗 12年) 3月 19日(癸卯), 임금이 上王을 받들어 酒과 擊毬 하였다는데, 酒군이 이기지 못하였다; 上奉 上王與諸群 擊毬諸群不勝.(太宗實錄 22卷, P. 162)

1412年 4月 15日(己巳), 宗親을 불러 擊毬 놀이를 구경하고, 이튿날도 그와 같이 하였다; 召宗親 觀擊毬戲于廣延樓 明日亦如之.(太宗實錄 22卷, P. 176)

1412年 4月 22日, 宗親 寧安君 李良祐 등을 불러서 擊毬 하는데, 그때 작약이 만발하였다.

입직대언 한상덕을 불러서 꽃술을 내려 주며 “내가 이러한 놀이를 하는 것이 불가하지 아니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 놀이가 거칠고 음란한 게 아닙니다. 만일 매일 단정히 앉아 있으면 기운이 막혀서 병이 납니다. 만기의 여가에 종친과 더불어 잠깐 이러하니 놀이를 하는 것이 또한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임금이 “내가 만일 거칠고 음란한데에 이르거든 경 등은 반드시 말하라”; 召宗親寧安君良祐等 擊毬時芍藥盛開 召入直代言韓尚德賜花酒曰 子爲此戲無乃不可乎對曰此戲非荒淫若 每日端坐則氣滯而生病 萬機之暇與宗親 暫爲此戲亦伽傷乎 上曰 万 若至 荒淫則卿等必言之... (太宗實錄 22卷, P. 181)

1412年 5月11日(甲午), 宗親을 불러 廣延樓 아래에서 擊毬하고 술자리를 베풀고, 內廐馬를 내

중세 한국의 Sticksports에 대한 새로운 이해 I (배영호 · 오만원 · 정구철)

려 주었다; 召宗親擊毬御廣延樓下 設酌賜廐馬.(太宗實錄 22卷, P. 188)

1412年 5月 17日, 宗親을 불러 擊毬 하는 것을 구경했다; 召宗親觀擊毬及設酌.(상계서 23 卷, P.194)

1413年 7月 13日(庚寅條), 임금이 上王을 받들고 광연루 아래에서 擊毬 함; 上奉 上王擊毬觀 于廣延樓下 .(상계서 26卷, P. 11)

1414年(太宗 14年) 4月 12日, 임금이 上王을 받들고 광연루 아래에서 擊毬 함; 上奉 上王擊毬 于廣延樓下.(상계서 26卷, P. 159)

1414年 9月 11日, 임금이 宗親들과 광연루 아래에서 擊毬 함; 上宗親擊毬于廣延樓下.(상계서 26卷, P. 268)

1414年 閏 9月 28日(戊辰), 임금이 상왕을 받들고 광연루 아래에서 격구함; 上奉 上王擊毬廣 延樓下. (상계서 26卷, P. 286)

1414年 11月 12日(辛亥), 임금이 인덕궁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마련하고, 擊毬하여 즐김; 上御 仁德宮 置酒樂擊毬. (상계서 26卷, P. 307)

1414年 11月 29日(戊辰), 임금이 宗親들을 모아서 광연루 아래에서 擊毬함; 上 召宗親于擊毬 廣延樓下. (상계서 26卷, P. 313)

1414年 12月 29日(戊戌), 임금이 宗親들을 모아서 광연루 아래에서 擊毬함; 上召宗親擊毬于廣 延樓下. (상계서 26권, P. 323)

1415年 3月 8日(丙辛), 임금이 광연루 아래에서 擊毬함; 上擊毬于廣延樓下. (상계서 26卷, P. 351)

1421年 11月 甲申條, “太上王이 上과 같이 新宮(昌德宮)¹⁶⁾ 內庭에서 打毬를 하였다. 天氣가 매우 차가 와서 郊外에 나가지 못하므로 이와같이 하고 놀았으며, 다음해 봄에 이르러 그쳤다. 그 入侍 하여 打毬한 者는 孝寧大君 補, 益平府院君 根, 敬寧君 排, 恭寧君 使, 義平君 元生, 順平君 羊生, 漢平君 趙, 都摠制 李澄, 李湛과 光祿卿 權永均이다”; 太上王, 與上, 始打毬于新宮內 庭, 以天氣寒湖, 不可出郊外, 故爲此戲 至明春乃止,... (世宗實錄 14卷, 3年 11月 甲申條)

1422年 1月 丙子條, 太上王은 宗親으로 하여금 賭幣의 打毬를 하게 하여 都摠制 李澄이 말 (馬)한필을 얻었다; 太上王, 命宗親, 打毬賭幣, 都摠制李澄, 得馬一匹. (世宗實錄 15卷, 世宗 4年,

16) 태종5년(1405)에 이궁우로 세워진 창덕궁은 처음에 외전 74칸 내전 118칸 규모로 지어졌으나 이후에 광 연루, 진선문, 금천교, 돈화문(정문)거처 하면서 정치를 행하기도 하였다.(한국의 궁궐 p104)

1月 丙子條)

이상과 같이 高麗末에서 부터 朝鮮 初期까지의 史料에서 보이는 擊毬 또는 打毬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왕실 Sports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의 기록들만 가지고는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Golfsports라고 주장하기엔 무리이다. 그래서 開國이래 부터 정치, 문화적으로 강력한 영향 세력이었던 중국 대륙에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중국이 體育史 學者인 Ho, Gun-Sun에 의해 1926년 上海에서 出版된 “中國 體育의 歷史”에 따르면, 현재의 Golfsports와 매우 類似했던 Chui-Wan이라는 왕실 Sports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Chui-Wan은 왕실 Sports로서 唐祖 이후 後唐(923-935), 宋祖(960-1279) 그리고 원대(1260-1367)에 이르기 까지 王族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StickSports(Schlägerspiel)이며, 그것의 競技 方法은 다음과 같다”.

“Ground의 크기는 선수의 數에 따라 多樣했다. 경기장내에는 game을 시작하기 위한 “teeing ground”가 만들어졌는데 1피트보다 좀 넓고 보통 동쪽을 향해 있었다. “Hole” 또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만들어졌고, 색이 있는 旗를 세워서 표시하였다. “teeing ground”와 “Hole”사이의 距離는 선수들의 기술, 경험 그리고 打力에 의해 결정되었다.”

“Ball은 대개 玉(碼瑠)이나 단단한 나무로 만들었다. Ball의 무게는 Stick이나 “Club”의 무게에 比例 했다. Ball이 너무 무거우면 움직임이 너무 느리고, 너무 가벼우면 공중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Club의 Head는 단단한 나무로 이루어지고, grip 부분은 대나무를 줄로 묶고 풀로 단단히 붙여 사용하였다. Club의 길이나 grip의 굵기는 player의 키나 몸무게에 따라 조절될 수 있었다.”

“Player의 數는 제한이 없었다. player들이 10명 이상이면 2개 team으로 나누어, 각 team에 5명 또는 그 이상으로 組를 이루었다. 10명이 넘는 player들이 함께 겨루는 game을 “큰 모임”(big assembly), 8 명에서 6 명사이를 “중간 모임”(midium assembly), 6 명에서 4 명까지를 “작은모임”(small assembly) 이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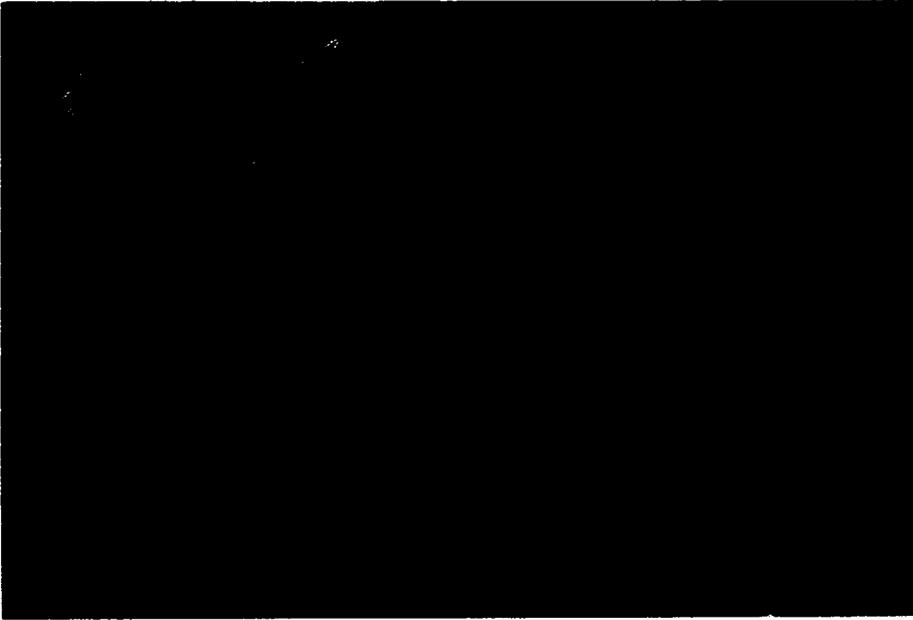
“Game 시작 전에 모든 player들은 打順을 결정한다. 각자의 打順에 따라서 자신의 team내에서와 상대 team의 player들이 교대로 teeing ground에서 ball을 쳤다.”

“정확한 Stroke를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며, 자세의 종류로는 다음 4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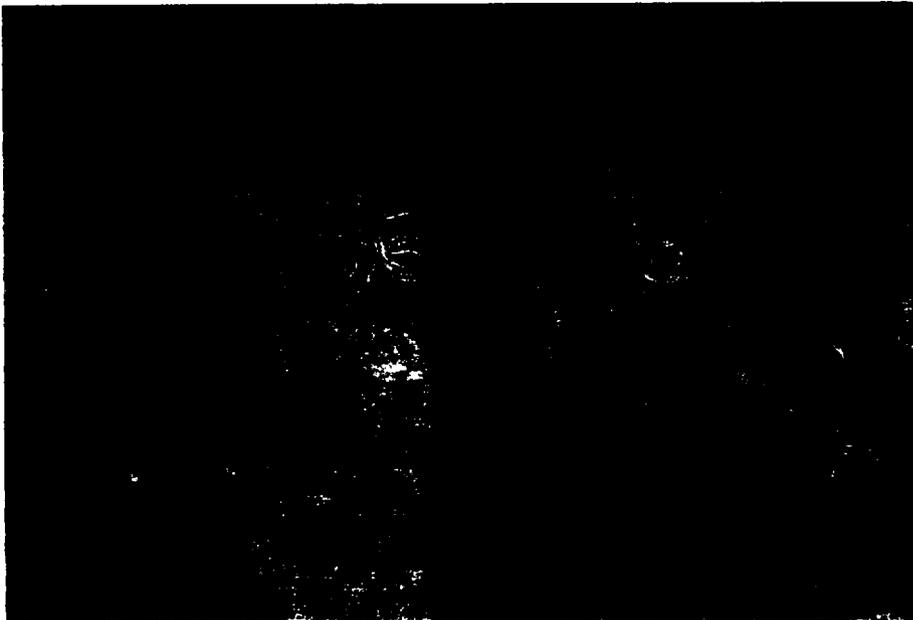
“나아가기”(stepping position), “서서치기”(standing position), “웅크리기”(squatting down) 그리고 “돌진하기”(dashing along)등이 있다.”

“Score는 막대기를 추가하여 계산하였고, 승리자는 특별한 상을 받았다.”

중세 한국의 StickSports에 대한 새로운 이해 I (배영호 · 오만원 · 정구철)



<그림 - 2> 왕궁 내부(内庭)에서 貴婦人들이 Golf를 즐기는 모습



<그림 - 3> 야외에서 貴族들이 Golf를 즐기는 모습

“21개의 Penalty가 있었으며, 이는 규칙의 뒷 부분에 강조하여 언급하였다.”

왕실 Sports로서 Golfsports는 당시 중국과의 정치, 문화적 관계를 考慮해 볼때,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기록 년대 -1150년 11월- 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한국의 왕실에 전달 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元代에 印刷된것으로 추정되는 Chui-wan에 관한 소책자(丸經)에 의하면, 이미 당시에 이미 거의 완벽한 Sports로서 대단히 盛行했음을 알게된다.(이진수, 1987,11)

그리고 15세기 경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앞의 그림들 또한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 하고있다.

더우기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 오늘날의 Golfsports를 연상시키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

그림 2 는 왕궁 내부(內庭)에서 貴婦人으로 보이는 3 女子가 Golf를 하고 있고, 侍從으로 보이는 2 女子는 여분의 golfclub 을 들고있는 것으로 보아 caddie의 役割을 했던것 같다. 그림3 은 야외에서 貴族들이 Golf를 즐기는 모습을 描寫 하고있다. 자세한 game 형태는 모르나 중국을 통해 한반도로 流入되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더우기 그림 3은 golf를 왕궁만이 아닌 野外에서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고려사와 조선실록등에 보이는 왕 또는 귀족들이 “공을 쳤다”(打毬) 또는 “步打毬”등 의 기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기록은 Golfsports가 元帝國을 통하여 한반도로 전해졌음을 示唆하고 있다.

“...打毬의 놀이는 망한 元나라 때에 임금과 신하가 도리를 잃고 황음하여 행하던 것입니다. 都興, 柳雲, 金師幸등은 망한 元나라에 들어가서 벼슬하다가 그 일을 보고서는, 마침 太上王의 創始하는 初期를 당하여 진언하기를, ‘임금이 궁중에 처하여 만일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반드시 病이 생길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데는 打毬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즉시 그 術策에 行하여 총행을 입었으니, 윗사람의 뜻을 맞춘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었습니다... .

원하던대, 이제부터는 打毬하는 놀이를 행하지 마시고, 일동 일정(一動一靜)을 예(禮)로서 節制하소서... .”(定宗實錄 1卷, 元年(1339) 1月 5日)

“...打毬之戲, 其在殘元, 君臣失道 荒淫之所爲也, 都興 柳雲 金師幸等, 遊事殘元, 得見其事, 適值太上王, 創始之初, 進言曰, 人君處於宮中, 苟不運身, 必生疾病, 運身之利, 莫如打毬, 乃行其術, 得蒙寵幸, 逢迎之罪, 莫大於斯, ... · 願自今毋行 打毬之戲 一動一靜 節之以禮... .”

위 기록중 創始라는 대목을 注意하여 理解하면, 打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Golf가 이조 초기 太祖 이성계에 의해서 도입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소개한 것과 같이 이성계는 고려 말기에 擊毬의 슈퍼스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왕궁에서 打毬라고 불렸던 Golf를 행했을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유추 할 수 있다. 당시 이성계를 추종 했던 무리들 중 都興, 柳雲 그리고 金師幸 등이 元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이 golf(打毬)를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들은 太祖 이성계와 함께 이 새로운 Sports를 왕실 Sports로 導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同時代에 쓰여진 다음의 事件記錄을 有意할 필요가

있다.

太宗 13年 2月 30日(己卯), "... 혜정교(惠正橋)거리에 아동 곽금(郭金), 막금(莫金), 막승(莫升), 덕중(德中)등이 있어, 打毬놀이를 하는데, 每 毬의 칭호를 하나는 주상(主上)이라 하고, 하나는 효령군(孝寧君)이라 하고, 하나는 충녕군(忠寧君)이라 하고, 하나는 반인(伴人)이라 하였다. 서로 毬를 치다가 毬 하나가 다리 밑의 물로 굴러 들어가자,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효령군이 물에 빠졌다." 하였다. 孝寧君의 유모(乳母)가 마침 듣고 쫓아가 잡아서, 효령군의 夫人 대사헌 鄭易에게 고 하였다. 鄭易이 刑曹에 고하여 獄에 가두고 물으니, 말하기를, "곽금(郭金)이 제창하여 장난한 지 이미 3일입니다..." (太宗實錄 13年, 2月 30日)

위 기록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어린아이들이 거리에서 打毬 놀이를 하고 놀았다.
- 아이들 각자가 打毬 놀이에서 자신의 ball을 사용했다.
- 서로 공을 치며 놀았다.
- 이 놀이를 시작한 것이 3일째 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칫 "3일째 되었다"는 대목에 注目하여, 곧 그 당시를 打毬의 導入時期로 보면 안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獄에 갇히게 된 原因이 打毬놀이를 한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ball에 당시 王과 王子들의 이름을 붙이고 놀이를 한 것이 罪가 된 것이며, 또한 打毬 놀이를 하면서, 每 ball에 이름을 붙여서 놀이를 한지가 3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이 놀이는 이미 아이들의 놀이로서 시중에 잘 알려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왕실 Sports가 시중 아이들에게까지 알려질 정도라면 그것은 꽤 많은 시간이 經過되었음을 意味한다. 이로부터, 打毬 (golf sports)는 이조 이전 곧, 고려조 어느시기에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고려조 어느 시점을 導入時期로 보아야 할 것인가?

다음 기록들은 이런 疑問과 關聯하여 보다 자세한 分析을 要하고 있는데, 고려사에 보이는 "騎馬擊毬"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擊毬 (Polo) 그 자체가 騎馬 狀態에서 이루어 지는데, 왜 또다시 "騎馬擊毬"라는 用語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를 "騎馬擊毬"의 反對概念을 가진 Sports가 存在했었다! 고, 이해 한다면 지나친 논리의 飛躍일까?

민속학계에서는 이미 騎馬擊毬의 反對 概念으로서 "步打毬"라는 用語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그들 역시 打毬와 Golf와의 關聯性을 理解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다음은 고려사에 보이는 騎馬打毬에 관한 기록들이다

"송화(宋和)가 젊어서 騎馬 擊毬를 배웠다. 그와 같이 奇妙한 技法을 그 전에는 볼 수가 없었다. 元帝는 매우 기뻐하며, 左右 사람에게 말하길 "저 技法은 만일 神의 도움이 아니면 그것은 幻術일 것이다" 라고 했다"; 宋和, 少習騎馬, 擊毬弄杖妙絕古今, 帝, 甚歡賞, 謂左右曰, 苦非神助 則是幻術.(高麗史 卷 124 列傳 37卷 吉甫條)

"기탁성(奇卓誠)은 행주 사람으로 용의가 예쁘고, 射御를 잘하여 처음 교위에 보 하였는데,

毅宗이 騎馬擊毬를 좋아하여 끌어올려 牽龍을 삼았다”; 奇卓誠, 幸州人, 美容儀善射御, 補校尉, 毅宗好馳馬擊毬, 擢爲牽龍. (高麗史 卷100 列傳 3卷 奇卓誠條)

騎馬擊毬와 그 반대 개념으로서 “步擊毬” 즉 打毬(Golf)가 이때부터 實際 했을 可能性은 이
 웃나라 -중국의 宋, 後唐 그리고 元 을 意味- 들 에서의 情狀에 미루어 보아 충분히 心證이 간
 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golf가 “Chui-Wan”이라는 이름으로 벌써부터 행해졌기 때문이다.

2-2) 장치기에 대한 논의

현재까지 장치기(Hockey) 역시 “步打毬” 또는 “打毬” 라는 이름으로, 왕실 Sports였던 Golf와
 구분하지 못한 상태로 Hockey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
 속 될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장치기(Hockey)라는 이름의 打毬에 대해서 그 경기 방법 등을 간
 략히 서술하여 궁중Sports였던 打毬 (Golf)와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장치기는 겨울철 어린이 놀이의 하나이며, 약 3~40년 전 까지만 해도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논바닥, 목밭, 얼음판 등에서 하던 놀이이다. 이 놀이는 體力 鍛鍊과 團合뿐
 만 아니라, 마을이 豐年과 安寧을 祈願하기 위한 놀이라고도 한다. 장치기는 地方에 따라 공치
 기, 打毬놀이, 장채놀이라고도 한다. 장치기에 사용되는 用具에는, 장치기대와 장치기 공이 있
 다. 장치 대는 굵기의 끝이 구부러진 길이가 3-4척 가량 되는 나무 자루이다. 장치기공은 크기
 가 야구공만 하며, 큰 나무 토막이나 강통 소나무 웅이로 만든다. 그 위에 가죽이나 새끼로 두
 르기도 하고, 새끼로 뭉쳐서 만들기도 한다. 경기장은 한 가운데에 가로로 中央線을 긋고, 그
 중앙선 한가운데에 동그라미를 그려 공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을 파 두고, 그 구멍에서 1 步와
 7 步의 반경으로 원을 그린다.

세로 線은 원래 없었으나 넓은 마당에서 할 때는 便易上 그어 두고 공이 線 밖에 나가는 것
 을 禁한다. 또 競技場 네 귀퉁이에는 1步 반 경의 圓을 그리고, 이 圓과 圓을 이어 線을 긋는
 다. 그리고 中央線에서 50步 정도의 거리에 대나무로 웃막이 없는 goalpost를 각각 세운다.
 goal의 넓이는 5步 정도로 하고 goalpost의 기둥과 중앙선을 平行하게 線을 긋는다. 놀이 方法
 은 편을 갈라서 상대편 goal 안에 공을 밀어 넣으면 得點을 하게 되며, 각각 11명씩 한 팀이 되
 어 각자 장치기대를 가지고 한 개의 공만 사용한다. Goalkeeper 1名만 문(goul)을 지키고 나머
 지 전원은 攻撃과 守備를 맡게 된다. 경기를 시작할 때는, 각 팀의 주장이 中央線 가운데에 있
 는 구멍에서 天毬(공을 허공에 던져 놓고 치는 공)을 쳐서 공이 멀리 간 편이 구멍공(원
 의 중심에 파놓은 구멍에 놓고 치는 공)을 쳐서 놀이를 시작한다. 공이 goal안으로 들어가면 한
 점을 얻게된다. 양팀이 서로 作定함에 따라 5點나기 - 10點나기로 정하며, 먼저 點數를 낸 편이
 이긴다. 장치기에서는 왼쪽공을 “왼공”, 오른쪽공을 “오른공”이라 한다.(최 상수, 1985)

위의 글에서 보듯, 이것은 명백히 Hockey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

2-3) 동아시아 와 서구의 Sticksports 에 대한 比較

지금까지 다루었던 종목들의 特性들을 다음<표-1>을 통하여 간단히 나타내 보았다.

아래의 比較表를 자세히 살펴보면 後唐, 宋祖(960-1279) 그리고 元代(1260-1367) 에 이르기
 까지 中國大陸에서 盛行했던 Chui-Wan, 그리고 12-13世紀境 부터 韓半島의 궁중에서 盛行했던

중세 한국의 StickSports에 대한 새로운 이해 I (배영호 · 오만원 · 정구철)

打毬 (棒戲)는, 소위 西歐에서 GolfSports의 原形으로 주장되는 13세기경 북부 프랑스의 어린이 놀이였던 “Soule a la Crosse”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類似한것을 알수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어떠한 經路를 거쳐있는지는 정확치 않으나, 동아시아의 Chui-Wan 또는 打毬가 현재의 GolfSports 形成 과 發展에 직접적인 影響을 주었음이 確實하다. 따라서 今後의 體育 史學界의 研究課題는 “GolfSports 發生地 論爭”이 아닌 유럽 大陸으로 傳達되어졌던 經路追適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표-1> 동-서양 StickSports의 특성비교표

특성/종목	현재의 골프	한국의 StickSports			중국의 StickSports	북부프랑스
		打毬(棒戲) (Golf)	擊毬 (Polo)	장치기 (Hockey)	주 丸 (Golf)	Soule a la Crosse
주요장비	Club, Ball	棒=Club 毬=Ball	馬=Pony 棒=Stick 毬=Ball	棒=Stick 毬=Ball	棒=Club 毬=Ball	棒=Crosse (Stick) 毬=Ball
Club 의 구 성	용도가 다른 14 개의 Club/아연 류의 특수장	용도가 다른 서 너개의 Club/대 나무 이용	1개의 Stick / 대나무이용	1개의 Stick/나무 자루	용도가 다른 서너개의 Club	1개의 Crosse/ 니젤라 가지
Ball 의 구 성	무게:45.93g 크기: 42.15- 42.67mm 재질:합성수지, 실, 고무	크기: 달걀크기 재질: 옥, 나무마디	크기:성인주먹 정도 재질:버드나무 마디	크기:주먹크기 재질:나무마디	打毬와 동일함	
경기장소 크 기	교외, Green, 18 Hole	왕궁및 교외, 60步-100步	격구장, 200步 /400步	넓은공간, 50步/100步	왕궁 및 교외 60步/100步	
득 점 방 법	작은타수로 자 신의 Ball을 지 정된 Hole에 치 거나 밀어넣음	작은타수로 Ball 을 Hole에 치거 나 밀어넣음 득점제, Hole in One일때:3점, Eagle일때:2점, 3타일때:1점	지정된 Goal에 Ball을 쳐넣었 을때 1득점	5보정도너비인 Goal에 ball 을쳐넣었을때 1득 점	打毬와 동일함	Ball을 대문 또는 지정된 나무 를 통과 또는 맞힐 때
놀이의 성격/계층	개인 및 단체 전/제한없음	개인및 단체전 / 왕족, 귀족	단체전/귀족 및 무관	단체전/ 일반대중	打毬와 동일함	단체전/ 아이들 또는 일반대중
목 적	다양함	건강유지	기예훈련	풍년기원, 마을단합	건강유지, 예절	단순한 놀이를 목적함
실행시기	연 중	주로 겨울철	연중	농한기	주로 겨울철	제한없음
실행년대	18세기 이래로 현재와 유사한 형태를갖춤	약 12세기 후 반기부터 중국 으로부터 도입 됨	약 9-10세기경 부터 중국으로 부터 도입	약11세기 이래부 터 행해진 것 같 다	약 10세기경부터 존재 했을 것으로 추정됨	약 1200연대에 존재했던 어린 이놀이

Ⅲ. 마무리하는 글

先祖들에 의해서 행해 졌던 傳統 Sports의 새로운 理解를 위한 첫 번째 작업으로서, 本考에 서는 中世 한국의 왕궁을 중심으로 盛行했던 打毬의 實體를 把握하기 위하여 體育學的인 見地

에서 多角的인 論議를 시도했다.

그 結果 中世 한국의 궁중에서 擊毬, 打毬 또는 棒戲라고 불리면서 盛行했던 Sticksports는 그 運動 性格으로 보아 현재의 Golf와 매우 類似했던 놀이 임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논의되어진 Sticksports 즉, Golfsports는 중세초기부터 한국의 왕궁에서 왕족들에 의해서 매우 盛行했었다. 그리고 이 Sports는 같은 Sticksports로 分類되는 Polo(擊毬)와 비슷한 經路인 중국 대륙으로부터 약 12-13세기경에 한국의 王室에 導入되어진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이때에 導入되어진 Golf가 一般 大衆階層에서까지 行해진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Polo의 導入 時期와 비슷한 시기에(약 9세기경) 民間에서는 장치기라는 Sticksports(Hockey)를 行했을 것으로 推定된다.

한편 중세 한국의 왕실 Sports였던 打毬와 중국대륙의 Chui-Wan 이 Golfsports로서 확신을 위하여 西歐에서의 “Golfsports 발생지에 대한 논쟁”과 그 발전 과정을 살펴보았다.

西歐의 “Golf발생지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Golfsports가 지금까지 알려진것처럼 영국이나, 북부 유럽의 어느 地方에서 發生한 것이 아닌 아시아대륙에서 발생했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 충분한 說得力을 갖는다.

1) 지금까지 서구의 체육사학계에서 밝혔던 Golfsports의 發生 時期(약 13세기 초반)보다 훨씬 以前인 약 11세기경 부터 동아시아에서는 Golfsports가 Chui-Wan 또는 打毬(棒戲)라는 이름으로 存在했었다.

2) 동아시아와 서구의 Golfsports에 대한 운동원리(Spielgedanke)와 특성을 비교해볼때, 西歐에서 Golf의 원형이라고 주장되는 “Soule a la Crosse”는 동아시아의 “Chui-Wan” 또는 打毬보다, 그 발전시기와 運動形態의 共通性에 있어서 絕對的으로 未洽하다.

3) 그리고 명칭의 意味比較에 있어서도 Crosse, Golf, kolf, Golfen, kolben등은 한결같이 stick만을 意味하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棒戲, 打毬 그리고 Chui-wan으로 불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막대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막대기로 공을 친다”는 좀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도 특기 할 만하다.

此後의 연구과제는, Golf가 동아시아에서 유럽대륙으로 傳達되었던 經路를 證明키 위한 후속적인 연구가 要求된다.

그리고 발전적인 學文 活動을 위해서 최소한 2가지 側面에서 시급한 改善이 要望된다.

첫째는 당시의 史官들이 漢字 表記過程에서의 誤謬로 인하여 發生된 궁중 Sports 打毬(golf)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위해서, 關聯學界와 書籍 그리고 辭典類에 이르기 까지 현재의 잘못된 정보를 속히 시정해야 한다.

둘째는 國內外的 關聯 學界와 學問的인 協助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高麗史
2. 郭亨基: 麗祖 擊毬 發展相에 대한 小考. 서울 大學校大學院, 教育學碩士 論文 未刊 1978
3. 羅絢成: 한국 체육사 연구. 서울, 교학 연구사, 1981
4. 세종 대왕 記念 事業會: 한국 古典 用語 辭典. 서울, 1991

중세 한국의 Sticksports에 대한 새로운 이해 I (배영호 · 오만원 · 정구철)

5. 龍飛御天歌.
6. 이 강근: 한국의 궁궐. 서울, 대원사, 1993
7. 이 진수: 韓國의 打毬에 관한 研究. 東亞 大學校 Sports 科學 研究所 Vol. 4. 1988
8. 세종대왕 기념사업 위원회: 조선 실록. 서울, 광명인쇄공사, 1974
9. 최 상수: 한국 민속놀이의연구. 서울, 성문각, 1985
10. 한국 민속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한국 민속 대사전 II. 서울, 민족 문화사, 1991
11. Bohus, Julius: Sportgeschichte -Gesellschaft und Sport von Mykene bis heute-. Muenchen BLV Verl. 1986
12. Diegel,Helmuth: Sport verstehen und gestalten. rowohlt Verla. 1982
13. Diem, Carl: Asiatische Reitspiele. Olms Verla. Berlin, 1982
14. Gilmeister, Heiner: Der Golfkrieg ist entschieden. In: Sportmagazin "Golfports" Nr.2 Mai 1988
15. Ho, Gun-Sun: Physical Education in China. The Commercial Press Limpert shanghai, 1926
16. Ling, Hong-Ling: Verification of the fact that Golf originate from Chui-Wan In: Australia society for sporthistory bulletin Nr. 14, July. 1991
17. Quanz,D.: Golfregel in lateinbuch. 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Dienstag 18, August, 1992 Nr.191)